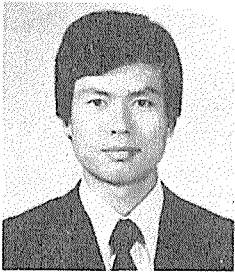


83年度 經濟運用計劃과 에너지部門施策



李 銅 焄

〈經濟企劃院 投資計劃課·行政事務官〉

I. 序說

第 5次 經濟會社發展 5個年計劃實施의 1次 年度이기도 한 82年의 우리 經濟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운용되어 왔다. 대외적으로는 世界景氣가 예상외로 沈滯가 지속되었고, 各國의 保護貿易強化로 交易增加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유례없는 高金利 추세와 國際金融市場의 不安定 等으로 借入環境도 악화되었다. 대내적으로는 79年의 第2次 石油波動以後의 오랜 沈滯로 企業의 投資意慾이 低喪되고, 과거 오랫동안 지속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국민들의 實質所得이 줄어들어 內需回復도 不振하였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內需振作을 통한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1.14措置, 6.28措置 등 일련의 經濟活性化 措置를 취한데 힘입어 경기는 沈滯에서 벗어나 서서히 回復되어왔다. 특히 原油價格등 國際에너지價格의 안정은 이러한 景氣回復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룩한 82年 經濟実績을 간단히 살펴본 다음 83年 經濟運

用計劃의 주요 내용과 에너지部門重點施策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II. 82年 經濟実績

82年度 우리 經濟는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하에서도 安定基調가 정착되는 가운데 지난 3年간의 長期沈滯에서 벗어나 완만하나 지속적인 成長勢 回復을 보였다.

1. 安定基盤의 構築

가. 物價의 安定

物價는 지난 3月 이후 한자리 숫자의 안정을 다지고 있으며, 年末基準으로 都賣 2.4%, 消費者 4.8%로 大幅 安定되었다. 우리나라의 82年度 物價水準을 世界 다른 先進國과 비교해 보더라도 美國, 英國, 프랑스 등 西歐 先進國보다도 훨씬 安定勢를 보였으며, 다만 우리의 主要競爭 相對國인 台灣, 싱가포르 보다는 아직도 약간 높은 上昇勢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物價의 안정요인은 대외적으로는 原油를 비롯한 輸入原資材 價格이 81年까지의 높

은 오름세에서 反轉하여 82年中에 평균 5%나 하락하는 등 輸入物價가 안정되었으며, 대내적으로는 첫째, 国内景氣가 예상보다 완만하게 회복됨으로써 需要面에서의 超過需要 압력이 적었던 점, 둘째, 農産物의 豐作으로 食料品 價格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 셋째, 政府의 物價安定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노력으로 「物價오름세 心理」拂式을 위한 各種 經濟政策의 安定的 運用, 넷째, 勤勞者, 企業家 및 消費者 등 国民 各界各層의 협조와 노력을 들 수 있다.

物價上昇趨勢

(上昇率: %)

		'81	'82	'82年 經濟 運用 計劃
都 売	年 末	11.3	2.4	10 - 14
	年 平均	20.4	4.7	-
消 費 者	年 末	13.7	4.8	10 - 14
	年 平均	21.3	7.3	-

나. 國際收支의 改善.

82年の 經常收支 亦字는 81年の 44億달러에서 22~25億달러로 19~22億달러 가량 축소될 전망이다. 이 水準의 經常收支 亦字는 對 GNP比率로 3.3~3.8%가 되는 것으로 5次 計劃上 86年 目標水準에 近接하고 있다. 이러한 經常收支 개선의 要因으로는 輸入價格의 하락폭이 輸出價格의 하락폭보다 컸고, 輸出物量은 증가한 반면 輸入物量은 에너지節約과 쌀 豐作에 따라 原油 및 쌀 輸入이 크게 감소한 점을 들 수 있다.

輸出은 對外經濟環境의 악화로 81年 수준은 약간 上廻한 데 그쳤으나, 船舶等 重工業部門의 輸出이 늘어나 輸出構造의 高度化가 진전되었다.

	單 位	'81	'82
經常收支	億달러	- 4.4	-22~-25
(對GNP比率)	%	(7.1)	(3.3~3.8)
輸 出*	億달러	210	216
重 工 業	"	95	110
其 他	"	115	106

(註) 商工部基準

2. 內需中心의 成長勢 回復

成長은 世界經濟의 유례없는 沈滯의 영향으로 輸出이 부진하여 當初目標인 7% 수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5~6%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꾸준한 內需振作努力이 뒷받침되어 특히 住宅, 電力 등 建設業 分野의 成長勢가 호조를 보였다. 또한 物價安定으로 實質所得이 늘어나고, 中小企業中心으로 補完投資가 활발하여 內需에 뒷받침된 製造業生産도 착실히 증대되었다. 이러한 經濟成長은 先進諸國의 제로成長, 産油國의 「마이너스」成長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며, 향후 世界景氣가 好轉되면 輸出回復이 가세되어 成長勢가 촉진 될 것으로 전망된다.

(%)

	'81	'82	備 考
經濟成長率	6.4	5~6	*台 3.6%
(住宅建設增加率)	-18.7	45.3	日 本 2.4%
(電力投資增加率)	- 6.0	26.7	싱가포르 5.9%
失 業 率	4.5	4.4	

III. 83年 經濟運用計劃

1. 基本方向

83年の 世界經濟는 인플레이 鎮靜과 함께 82年の 最低点에서 脱皮, 약간의 상승을 보일 것이나 先進各國이 경쟁적으로 貿易障壁을 강화하고 있어 그 회복정도는 불확실하다. 이러한 世界景氣의 불안정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經濟의 安定基盤을 공고히 하면서, 適正成長을 달성하는데 83年 經濟運用的 最優先 順位를 부여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重点課題로서

첫째, 低物價 時代의 정책운용과 物價오름세 心理 拂式으로 經濟安定基盤을 완전히 정착시킬 것이며,

둘째, 輸出증대를 위해 技術主導政策을 지속하고, 競爭促進 등 構造改善施策을 발전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셋째, 中小企業, 部品産業, 地域開發 등 落後部門의 개선과 에너지節約 施設部門의 投資擴大를 통하여, 輸出을 補完하는 成長原動力을 개발하고,

넷째, 賃金 및 分配構造를 개선하고, 住宅, 保健, 醫療分野에 重點을 둔 社會開發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또한 政策推進過程에의 참여를 확대하고, 政策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강화하여 신뢰를 고양하고, 政策의 实效性을 提高할 것이며, 世界經濟의 회복정도가 産業保護擴散, 國際金融危機, 美國經濟政策의 向方 등에 따라 流動的이므로, 이에 대비한 予備代案을 발전시켜 적정한 成長勢를 유지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2. 主要政策方向

가. 安定基盤의 鞏固化

82년에 다져진 安定基調를 바탕으로 83년에는 競爭國 수준의 低物價-低金利-安定的 換率運用體系를 確立하여 安定基盤을 완전히 정착시킬 것이다.

먼저 物價는 海外要因의 안정이 예상되므로 貯蓄增大, 需給調節, 生産性 向上, 競爭促進, 에너지節約을 통한 原價節減 등의 施策發展으로 國內要因을 최소화하여 都賣物價는 2~2.5%, 消費者物價는 3~4%에서 안정시킬 것이다.

通貨의 運用에 있어서도 物價安定과 成長回復을 뒷받침할 수 있는 適正水準으로 通貨增加率을 회복할 것이며, 總通貨增加率을 18~20%로 잡고, 分期別로 점차 縮少할 것이다. 또한 平均殘額에 입각하여 通貨供給目標을 設定運用하고, 間接規制에 의한 通貨管理를 定着시킬 것이며, 貯蓄增大를 통하여 通貨(M₁)增加率을 안정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金利는 적정한 實質金利를 보장하면서 貯蓄, 國際金利, 景氣動向 등을 綜合하여 伸縮的으로 運用하되 競爭國 水準으로 金利引下와 件이 가능하도록 資金需給事情을 개선할 것이며, 少額定期預, 積金 및 長期預金優待, 信用도에 따른

差等金利 適用 등 金利體系의 改善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82	83
都賣物價上昇(%)	2.4	2~2.5
海外要因	0	0~0.5
國內要因	2.4	2.1
消費者物價上昇(%)	4.8	3~4
總通貨增加率(1)(%)	27.8	18~20
通貨增加率(1)(%)	47.0	17.0
貨幣發行額增加率(1)(%)	26.6	14.0
總財政收支(兆원)	1.9	1.3
(對 GNP比率)	(3.8)	(2.3)
公共部門與信(億원)	5,085	5,000~6,000

(註)(1): 年末基準

한편 財政執行의 효율화를 통해 財政亦子를 최소화 하고 政府施行工事의 早期執行促進 등 進실한 財政運用에 노력할 것이다.

나. 輸出의 持續的 伸張

83년에는 무엇보다도 技術開發 및 生産性 향상과 輸出構造의 고도화가 輸出競爭力 提高를 위한 重要課題이다. 이를 위하여 研究開發投資促進을 위한 資金供給 및 技術開發準備金利를 확대하는 한편 아직 개발여지가 많은 纖維 등 輕工業製品의 品質高級化 및 非規制 新製品을 개발하고 延拂輸出 金融支援對象을 확대하고 그 財源을 確保할 것이다. 또한 市場開拓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輸出의 價格競爭力 提高를 위해 적정한 輸出金融支援을 계속하고 換率을 실

輸出屈望

	單位	'81	'81	'83
輸出	億달러	208.8	216.0(1)	240.0
(增加率)	%	(21.3)	(3.4)	(12.7)
信用狀方式輸出	億달러	180.5	166.2	184.0
中長期輸出	"	5.7	11.0	16.0
其他輸出	"	22.6	38.8	35.0
信用狀來到	億달러	179.0	161.9	181.0
(增加率)	%	(13.0)	(-9.6)	(11.8)

(註): 商工部 基準

세화하는 한편, 非競爭의 輸出用 原資材에 대하여 關稅率을 인하할 것이다. 그리하여 輸出은 82年보다 24億달러가 늘어난 240億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蕭索한 內需振作

雇傭改善 및 生産性 향상에 따른 供給側面的 7.5% 成長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內需쪽에서 7% 내외의 상승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中小企業, 機械類部品産業, 住宅, 落後地域開發 등 落後部門의 개선과 技術開發에 대한 投資를 확대하고, 物價安定을 통해 實質所得의 증대도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또한 中小企業의 生産性 向上과 補完投資를 촉진하고 機械産業의 內需 基盤 확대를 통해 輸出競爭力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競爭力 있는 機械材 및 部品の 專門系列化 및 國産化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實質增加率 (%)

	'82	'83
總輸出	7.5	8.7
總內需	5.3	6.9
GNP 增加率	5 ~ 6	7.5

라. 部門別 重點推進施策

83年 經濟運用計劃에 있어서 總量部門의 目標達成을 위해 各部門別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施策들은 다음과 같다.

- 農家所得의 增大
 - 産業生産性의 向上
 - 에너지의 合理的 利用
 - 住居生活의 安定 및 向上
 - 人口增加의 抑制
 - 社會開發의 擴充
 - 國土의 均衡開發 및 環境保全
 - 通信 및 輸送能力 向上과 情報産業의 育成
- 다음에서는 章을 바꾸어 에너지의 合理的 利用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IV. 에너지의 合理的 利用

1. 序言

우리의 經濟構造는 成長過程에서 다른 外國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消費를 隨伴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너지 多消費型 産業 構造로서 에너지 節約의 여지가 많다. '75~'79의 GNP에 대한 에너지 消費의 彈性値는 우리의 경우 0.96%으로서 美國의 0.42나 프랑스의 0.34, 日本의 0.3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에너지消費의 對GNP 彈性値('75~'79)

韓國	美國	프랑스	日本	台灣
0.96	0.42	0.34	0.30	1.39

70年代에는 두 차례에 걸친 石油波動으로 우리의 에너지政策은 에너지의 安定確保에 置重하여 사실상 에너지의 합리적 利用에 노력을 경주할 여력이 충분치 못했으나, 다행히도 작년 이어 금년에도 原油價 등 國際에너지 價格이 安定될 전망이므로 이때야말로 에너지의 消費節約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에너지 利用에 노력을 기울일 時期라 하겠다. 따라서 政府는 83年度 에너지部門施策의 重點을 에너지 消費節約과 에너지源의 多元化를 통한 石油依存度의 縮少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두었다.

2. 에너지 消費節約의 強化

82年度에 에너지 節約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과거에 매년 6% 정도로 에너지 消費가 증가해 왔었으나, 82년에는 經濟成長에도 불구하고 사상 最初로 에너지 消費가 감소하였다. 이는 異常暖冬에 의한 家庭에너지 消費減少 및 에너지多消費 産業의 相對的 成長低調에도 일부 起因하지만, 무엇보다도 강력한 에너지節約施策의 성과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節約의 餘地는 많이 남아 있어 그 必要性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다음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年 이후 에너지 消費의 對 GNP 彈性値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나 彈性値가 0.3内外인 外國의 경우에 비교해 볼 때, 아직도 節約의 餘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5-'80	'75-'81	'75-'82
에너지消費 / GNP彈性値	1.37	1.26	0.89

따라서 83年度에는 産業部門의 에너지節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住居·商業用 建築物에 까지節約의 노력을 擴大해 나갈 것이다.

産業部門에 대하여는 현재 3,000億원 規模의 에너지節約 施設資金이 今年 上半期 중에 全額 消盡될 전망이므로 産業體의 에너지節約 施設 投資를 계속 추진시키기 위하여 上半期 中에 資金 規模를 확대할 것이다

에너지節約施設 投資가 갖는 의의는 에너지節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原價節減을 통한 物價安定과 國際競爭力을 強化시키고 에너지 輸入 減少에 의한 國際收支 改善은 물론 內需促進을 통한 經濟活性化에도 크게 기여한다는데 있다.

또한 産業體의 에너지節約을 強化하기 위하여 에너지 損失率이 상대적으로 높은 中小企業을 中心으로 에너지 管理 診斷과 現場技術指導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多消費業體 100個에 대하여 目標原單位를 설정, 管理하여 目標未達時 是正措置할 것이며, 製紙, 纖維, 食品業體등 一般産業體에 대하여

石油의 有燃炭 代替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住居, 商業用 建築物에 대하여도 施策을 強化하여 斷熱基準 등 建築法의 에너지節約 基準의 再檢討와 法令上의 基準履行의 实效性을 提高하는 제도적 裝置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指導·啓蒙과 弘報를 強化하여 國民의 自發的 협조를 誘導할 것이다.

3. 石油依存度の 縮少

그 동안 石油依存度 減縮努力에 힘입어 石油依存度는 減少 趨勢에 있으나, 82年 現在 57.8%로서 아직도 높은 수준에 있다. 특히 에너지의 輸入依存도가 약 75%에 이르는 우리 나라의 경우 世界的으로 賦存量이 상대적으로 많고 低價인 石炭, 原子力, 天然가스로의 代替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國內石炭의 生産 制約과 國民所得向上에 따른 需要의 高級化로 家庭用燃料의 가스普及擴大도 필요한 형편이다. 따라서 83年에도 石油多消費 部門을 中心으로 石油代替 努力을 持續하여 石油依存度를 減縮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原子力, 石炭 中心의 脫石油電源開發, 産業用有煙炭의 使用 擴大, 家庭燃料의 가스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에너지節約 施設資金 融資実績 (82. 11末現在)

(억원)

	80		81		82		合計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申請	92	24	1,417	1,381	1,476	1,010	2,985	2,415
融資	77	20	1,336	927	1,416	1,198	2,829	2,145

發電源別 構成比

	發電 設備 (千Kw)				發電 量 (百萬KWH)			
	82	%	83	%	82	%	83	%
水 力	1,202	11.7	1,202	9.2	2,006	4.6	2,561	5.5
無 煙 炭	650	6.3	1,050	8.0	2,612	6.1	3,071	6.5
有 煙 炭	-	-	1,060	8.1	-	-	1,270	2.7
原 子 力	1,266	12.3	1,916	14.6	3,776	8.8	7,714	16.5
石 油	7,186	69.7	7,887	60.1	34,728	80.5	32,234	68.8
計	10,304	100.0	13,115	100.0	43,122	100.0	46,850	100.0

資料: 動力資源部

첫째, 石油代替 電源開發을 促進하여 古里 原子力 2号機를 비롯하여 三千浦#1, 高亭#1의 有煙炭 發電所, 西海 1, 2 호기의 無煙炭 發電所 7基를 竣工시킬 계획이며, 기타 水力發電所建設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 결과 發電設備 中 原子力의 비중은 82년의 12.3%에서 83년에는 14.6%로 提高되고 石油比重은 69.7%에서 60.1%로 감소될 것이다.

둘째 産業체의 有煙炭 使用을 擴大해 나갈 것이다. 시멘트産業은 그 동안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今年 2月이면 7個業체의 燒成爐 34基의 代替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금년에는 製紙, 纖維, 食品業種을 중심으로 重点推進하여 有煙炭使用을 擴大해 나갈 것이며, 仁川, 蔚山, 北坪의 石炭專用埠頭 建設을 계속 추진하고, 木浦埠頭는 금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少量需要

처의 安定供給을 위한 流通體系를 구축하고 高効率의 流動層 燃燒 보일러의 普及을 擴大해 나갈 것이다.

셋째, 가스普及 擴大의 基盤을 조성할 것이다. 가스供給은 LPG의 경우 82년의 630千톤에서 83년에는 820千톤으로 30%가 늘어나고 都市가스普及 家口는 170 千家口에서 270千家口로 59%가 늘어나게 되어 總에너지中 가스의 비중이 '82년의 1.6%에서 83년에는 1.9%로 提高될 것이며, 家口基準 가스普及率도 13%에서 17%로 늘어 나게 될 것이다. 여천에 建設中인 LPG引受基地가 今年 4月 경에 완공될 예정이며 87년에 導入예정인 LNG 引受基地 建設을 금년에 着手할 것이며 한국가스会社도 금년중에 發展할 것이다. 또한 가스普及擴大에 따라 安全管理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83韓國機械展 개최

한국기계공업진흥회(회장金周南)는 「'83韓國機械展」을 1983년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상공부主權, 한국기계공업진흥회 主權으로 열리는 이 展示會는 국산기계의 수요창출과 기술정보의 상호교류에 의한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 기계류의 수출진흥과 선진국과의 기술협력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출품품목은 전자제품을 제외한 전 국산기계류로 국산화율이 50%이상인 한하며 출품업체는 機械工業振興法 제 6 조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있어야 한다.

이 機械展은 국내최초로 1977년부터 개최, 隔年制로 열리고 있는데 지난 「'81韓國機械展」에는 27만여명의 參觀인이(외국인 3천여명) 쇄도하여 당초예정보다 전시기간을 연장하는 등 대

성황을 이루었고 전시기간중에 집계된 商談額만도 총 4백90억원에 이르며 그중 약 61 억원어치가 契約됐고 이 계약액중에서 절반이 훨씬넘는 5백90만 달러가 海外바이어들과 직접계약체결되는 수확을 거둔 바 있다.

또 진흥회는 「'83韓國機械展」부대행사로 카탈로그 콘테스트도 개최하는데 출품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별도 구성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수상한 작품에 대해서는 한국기계전 전시기간 중 따로 마련된 전시실에서 전시한다. 이밖에 전시기간 중 세미나도 개최한다.

기타 자세한 것은 韓國機械工業振興會 전시과(783-3073)으로 문의바람.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홍보과